

금요 수필

할 수만 있다면

시 시때때로 청조주를 만나곤 합니다. 길을 걸다가 무심히 내려다본 길옆 작불 속에 숨어 피어 있는 들꽃 한 송이, 그 가녀린 생명체의 애잔함에 꽃등이 시러울 때, 여광 길, 강가를 거닐다 서로 몸 비비며 엮여있는 조약돌을 손에 쥐었을 때의 그 부드러운 감촉에, 가로수 - 온 문 가득 씩안5년 이파리는 모두를 때내 보내고 그 선 위에 긴 봄을 흔들며 소리 죽여 숨게 우는 나뭇들의 슬픈 몸짓에서도 청조주를 만나곤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신의 섭리 없이는 자천로 존재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것이 아무리 미미하고 가치 없는 것이지라도 존재하는 이상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 온갖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그 생명이 각자에게 알맞은 이름을 주어 공존케 한 그 분의 깊은 뜻 그 뜻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만은 그대도 한 가지 눈치 챌 수 있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그게 동물이건 식물이건 살아 있음으로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식물 하나, 하나의 생명도 귀중하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



김 은 실
수필가

일컫는 사람이 이제 귀중하지 않겠습니까.

청조주의 수많은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게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단연 사람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한 가지 이름으로 명명해진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청조주의 예술품이기 때문입니다. 머리, 눈, 코, 입, 귀 등의 몇 가지로 구성된 각각의 사립을 얼굴 모양의 다름은 차지하고라도 사람마다의 특조라네 적응력은 어떠한가. 또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개개의 성격은 또 어떠한가.

많은 사람과 만나고 부대끼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가족과 친척, 나아가 이웃과 이해제래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과 끊임없는 교류를 하면서는 각박한나 다. 사람마다의 이질성에 놀랍니다.

한 어머니의 태에서 같은 날, 몇 분 간격으로 태어난 인위성 생물이든도 언뜻 보면 구별이 되지 않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생김새가 어딘지 다르게 다르고 성격과 취미도 같지 않으니 납니다.

우리 이렇듯 창조주의 위대한 예술품인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비로소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닌 공존의 삶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끊임없이 주고 받으며 수여진 생을 채워갑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인생의 질곡 속에서 해매게 된 때 잠자 쉬는 순간이 있어 다시 한 번 생의 의미를 다져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람들도 하여 위로와 용기를 얻기도 하지만 때론 사력들로 하여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상대가 무심코 던진 한 마디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가슴을 헤집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게 자신의 취약점을 들춰낸으로 단정 할이려면 그 아픔이 쉽게 가시질 않아 고통 받기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대인관계에 있어 상대에 대한 좋은 평가를 보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말만 나누며 좋은 관계로 자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월 속에 편승하며 살면서 좌바라는 게 있다면 곁게 전해가는 것입니다. 외교야 어쩔 수 없었지만 속사람만은 때 굳지 않은 맑음으로 빛나고 싶으니까요.

년 와 관상은 친구야.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남의 아픔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린 줄 아는 좋은 친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예쁜 친구.

단 한 사람의 친구에게라도 이런 마음을 줄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한국시’ 등단
“전북문학상, 전북수필문학상, 여류문학상, 영호남수필문학상, 해운문학 찾아주는 상, 수필문학발전유공상, 대동문학상 수상
“수필집 ‘나는 꿈꾼다’, ‘불꽃 되어’ 출간

사설

군산 햇김 수확 시작

군산 앞바다에서 물김 수확이 시작됐다. 본격 물량이 쏟아지면 우리 식탁에서도 햇김을 맛볼 수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 군산에 협단 가공단지가 들어서는 만큼, 어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대형 크레인인 배에 실어 온 물김 더미를 어관장에 내려놓는다. 군산 앞바다에서 채취한 2025년산 햇김이다.

가을까지 이어진 고수온과 잦은 비 탓에 일부 양식장에 황백화 현상이 나타나 올해 수확은 예년보다 2주가량 늦었다.

어관장에는 물김을 사러 온 중개인들의 눈치 작전이 한창이다. 요즘 물김 위판가는 120킬로그램 한 상자 21만 원에서 22만 원 가량으로, 예년보다 10만 원가량 낮다. 초반이라 생산량이 적은 데다, 마른 김 재고가 많아 햇김 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공장들

이 가동을 못 하다 보니가 김 값도 예년에 비해 싸게 나가는 것 같다.

수온 등으로 김이 자라지 않아서 어민들도 울상이다. 이르면 다음달 물김 생산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황백화가 얼마나 해소되느냐에 따라 전체 생산량과 가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후년 새만금 수산 가공단지와 함께 육상 김 양식 연구시설이 들어선다. 물김을 생산했을 때 지역에 가공 공장이 없다 보니가, 외지 상인들한테 가격 등에서 엄청난 피해를 봤다.

우리 지역에 가공공장이 생긴다고 하니 어민들의 기대가 큰 것 같다. K-씨푸드 열풍 속에 국산 김 인기가 높아지면서 귀하신 몸이 된 김이다. 군산이 바다의 검은 반도체다 불리는 협단 김 가공산업을 주도할지 주목된다.

내란 세력과 정치적 단절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12·3 불법계엄 1년이 되는 3일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약속했다.

같은 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하자 이와 별개로 사과문을 발표한 것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들이 공동으로 내놓은 사과문에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단절, △재창당 수준의 정당 혁신이 담겼다.

이들은 작년 비상계엄 당시 민주당의 줄 타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계엄이라는

방식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당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줄 타협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웠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현실을 타개할 필요가 있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의 틀 내에서 정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였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도 약속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이들은 “민생 정당, 정책 정당, 수권 정당으로 당 체질을 바꾸겠다”며 “재창당 수준의 정당 혁신을 이루어 내겠다”고 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노벨평화상 수상자 위한 햇불 행진



10일(현지 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의 평화센터 앞에서 노르웨이·베네수엘라 정의 연대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기리는 햇불 행진을 하고 있다. 마차도는 베네수엘라 민주화를 위해 싸워온 공로로 지난 10월 10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이날 시상식에서는 그의 딸 아나 코리나 소사가 대리 수상했다. 출국 금지 상태였던 마차도는 시상식 참석을 위해 비밀리에 출국했으나 약천후로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뒤늦게 노르웨이에 도착했다.

미 연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1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준비제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